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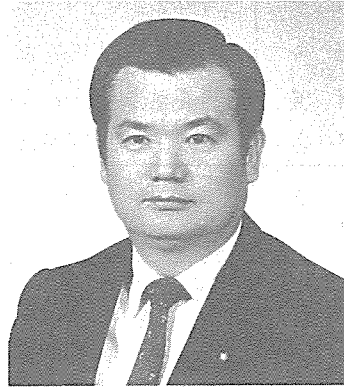
忠清南道支部篇

支部巡禮欄을 통하여 전국 회원과 지부 회원께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현재와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동안 숱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꺾끗하게 지탱하여 왔을뿐 아니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國運과 함께 많은 발전을 하여왔고, 量 보다는 質을 논하는 현금에 온것은 선배님들의 무수한 희생의 대가로 여겨집니다.

특히, 忠南支部는 언어와 행동은 느리다고 표현되어 오지만 建築士 社會에서는 어느 지부보다 민첩하고 앞서가는 선진지로 조금도 손색없는 支部, 리드하는 支部로 발전하였다고 자부하며 이는 모두가 선배임원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화합의 결실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支部長 인사



關榮基支部長

그러나 자량은 드렸지만 우리지부의 회원들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는 희생과 봉사와 사랑과 양보가 무엇인지 모르는 건축사도 있습니다. 나 밖에 모르는 에고이스트도 더러는 있습니다.

다. 사회는 공동체입니다. 사랑, 희생, 봉사없는 사회를 잠시 상상하여 봅시다. 몸서리치는 戰後時代를 생각해 됩니다. 우리 모두 상호 행복의 조건을 찾는 데 노력하여야 될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여겨집니다.

회원 개인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구 노력하는 자세, 안일과 무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우리들의 都市空間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21세기를 치달는 한국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함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성실하고 유능한 건축사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합니다.

끝으로 회원여러분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공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심을 하느님께 기원합니다.

*現況

1965년 회원 22명이란 단출한 출발이 법률 제 1536호로 제정 공포된 建築士法에 의거, 大田遞信庁 회의실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지부장에 양세환 회원과 간사 3명, 감사 2명을 선출하였다. 내진시 중구 대흥동 480 번지에 지부 사무실을 설치하고, 첫 출발을 한 이래 세번 지부사무실을 이전 하였으며 다시 1974년 7월31일자로 대전시 중구 대흥동 487의 1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121 명의 회원이 대전을 비롯한 16개 市郡에 분포되어 지부 및 천안, 홍성, 부여 分所에서 圖書申告業務를 처리하고 있다.

*成長過程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創立會員 22명이 初代 양세환 지부장님을 주축으

로 일차 단결하여 우리 지부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지역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고 지부와 궁지로써 어느 단체보다 모범이 되는 길을 연구하던차 회원상호간 무모한 경쟁으로 세인의 지탄을 받고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1967년 大田建築士共濟會로 발족하여 오늘날의 福祉會로서 발돋움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오늘의 복지회가 성장되어 오기까지의 과정에는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회고하여 볼때 이는 회원 모두가 역대 支部長 및

任員을 주축으로 따라와준 결실이며 大田을 필두로 지방 회원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아니었던들 오늘이 있기란 실로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이 4.5대 지부장이었던 김종민 회원께서는 회관을 건립할 것을 결심하고 대전건축사공제회 재산조성금을 조성하여 공사를 착수한지 1년만인 1974년 7월 3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회관 준공식을 당시 韓昌鎭회장님과 각 시·도 지부장을 모시고 개관식을 성대하고 자랑스럽게 가졌다.

역대지부장

대 수	지 부 장
1 - 3	양 세 환
4 - 5	김 종 민
6 - 7	박 흥 우
8 - 9	류 근 열
10	민 영 기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사 무 소 명	전 화	비 고
지 부 장	민 영 기	협창건축사사무소	253-3355 253-3356	당 진
간 사	박 장 용	박장용건축사사무소	22-4974	
간 사	원 유 택	원유택건축사사무소	22-0058 23-6307	
간 사	이 총 휘	이총휘건축사사무소	23-0419	
간 사	임 근 수	조형건축사사무소	23-7258	
감 사	류 성 희	류성희건축사사무소	22-8753	
감 사	육 이 창	육이창건축사사무소	2-2173 2-2553	
천안분소장	허 정 옥	미림건축사사무소		
홍성분소장	이 제 영	대홍건축사사무소		
부여분소장	권 백 순	권백순건축사사무소		

분소별 회원현황

분 소 별	건 축 사	2 급건축사	관 할 구 역
지 부 직 할	65	20	대전, 대덕, 금산
천 안 분 소	6	4	천안, 천원, 연기
홍 성 분 소	5	11	서산, 예산, 아산, 당진 홍성, 보령
부 여 분 소	5	5	부여, 서천, 청양, 공주, 논산
계	81	40	

연도별 회원수 및 도서신고 현황

연 도 별	회 원 수	도서신고실적(제곱미터)
1971	52	446,632
1972	63	405,606
1973	72	767,517
1974	77	753,929
1975	85	818,871
1976	90	1,104,812
1977	95	1,417,435
1978	99	1,804,832
1979	101	2,090,457
1980	104	1,714,284
1981	107	1,641,572
1982	109	1,506,341
1983	109	2,025,864
1984	116	2,353,065

당시 韓昌鎭회장님의 격려사 가운데 하신 말씀이 기억이나 여기에 쓰고자 한다.

“建築士의 힘으로 전국에서 첫번째로 건립된 건축사회관 준공식을 맞이함에 이 건물이 우리 건축사의 힘과 땀으로 모래 한알 한알로 이루어졌음을 상기하니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라는 말씀이 지금도 귓전에 맴돌고 있다. 이제 우리 忠南支部가 발족한지도 20년—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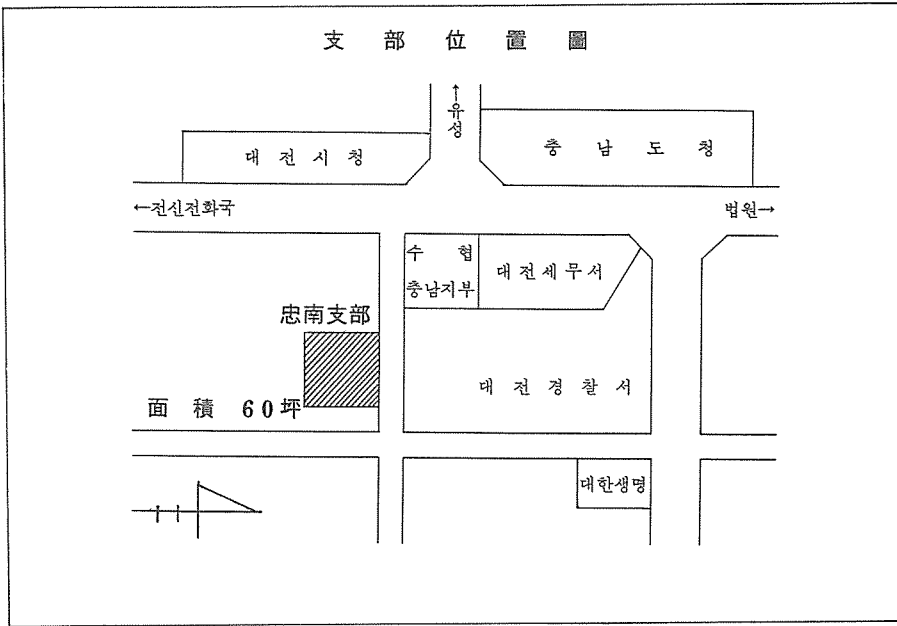
명의 회원이 121명이란 대가족으로 성년을 맞이하였다. 成年이란 어린시절을 다보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년다운 면모로 일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좀더 자중하고 협동하여 건축사만이 가질 수 있는 藝術人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우리 충남지부의 성장 과정을 생각하니 창립 당시 어려웠던 여건하에서 중추

역할을 하시었던 회원중 유명을 달리하신 선배 회원님들의 존안이 떠오름을 금할길 없어 삼가 명복을 빈다.

* 운영방침 및 진로

지금까지 역대 지부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의 협조로써 忠南支部는 계속 발전하여왔고, 앞으로 보다 나은 지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를 중점적



'85년도 始務式광경



'85농촌일손돕기 모내기광경



으로 시행코자 한다.

첫째, 회원들의 知合 團結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사업계획에 의한 고적당사, 연말 송년회 등을 통하여 과거를 되돌아 보고 내일의 설계를 위한 단합된 힘을 집약하도록 추구하여 나아간다.

둘째, 복지회 마을금고 운영을 통하여 老後對策基金을 축적, 회원들의 생활 안정을 갖도록 노력한다.

셋째, 회원들의 權益伸張과 地位向上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항상 회원들과 대화를 통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한다.

네째, 8월중 일본 시스오카겐 건축사회 하마마시 지부와 자매 결연을 체결, 본 지부회원의 외국과의 건축 정보및 기술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다섯째, '86,'88 올림픽의 보다 좋은 성적을 위하여 본 지부에서는 충남역도 연맹을 맡아 좋은 선수를 육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 기타 主要業務 및 事業実績

1. 시민을 대상으로한 건축행정 민원 상담실 운영
2. 도서의 질적향상을 위한 설계도서 검토제 실시
3.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업무 분리 시행
4. 회원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회 운영의 활성화
5. 회원 상호 우호 증진과 친목을 위한 단합대회 개최
6. 회원사무소 실태조사를 통한 업무지도 및 운영실태 파악
7. 선진외국의 건축정보 및 기술교류 추진
8. 보조원 관리를 위한 기록카드 작성 관리
9. 농번기 농촌일손돕기운동 전개
10. 새마을 사업지원 및 불우이웃 돕기 운동 전개
11. 체육진흥 육성지원사업으로 충남역도 연맹을 본 지부가 운영관리하고 연간 5,000,000원 지원